

박형수 법률사무소
 “고향 주민들의 상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고성고 24회 졸업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450-50(시외터미널 근처)
 상담문의 Tel : (033) 633-3635

현내면 오폐수 거진유입에 집단반발

거진하수처리장 인근 자산리 주민들 플래카드 내걸어 ... 17일 황군수와 면담 후 협상테이블에

고성군이 지난 2004년 12월 준공한 거진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현내면의 오폐수까지 처리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거진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받아 온 자산리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사진 4면>

자산리 주민들은 지난 6일 마을 총회를 열고 현내면 오폐수 자산리 유입 결사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운영배)를 구성하고, ‘고성군청 거짓 약속 자산주민 분노한다’, ‘자산주민 왕따, 고성 행정 각성’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10여개를 7번국도변에 내걸었다.

주민들은 2004년 준공한 하수처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는 감수하겠지만, 현내면 오폐수까지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현내면 오폐수까지

들어올 경우 현재보다 더한 악취가 발생해 도저히 생활할 수 없게 된다고 공사중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공사를 진행하려면 주민들을 이주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현내면 오폐수 유입 방침이 이미 2006년에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산리 주민들 모르게 공사계획을 확정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황익순 자산리 이장은 “지금 시설은 어떻게든 감수하고 산다고 하지만, 현내면 물량까지 처리하면 악취가 더욱 심해질텐데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운영배 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이 10여일 동안 목소리를 높인 결과 지난 17일 황종국 군수와 1차 면담이 가까스로 성사됐다”며 “황군수가 주민 동의가 없는 공사를 재개하지 않겠으며, 주민들

과 실무 부서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앞으로 실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50여개의 플래카드를 더 만들어 놓은 상태이며, 국도변에 내건 플래카드는 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철거할 수 없다”고 밝혀 주민들의 반발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지난 19일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접수한 상태로, 조만간 주민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진하수종말처리장은 2000년 9월 20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착공에 들어가 2004년 10월 23일 준공했다. 하루 평균 5천톤 하수를 처리할 수 있다. 최광호 기자



춘대(春太) 봄철에 잡히는 명태를 춘대라고 한다. 지난 6일과 13일 사이에 아야진 연안 일원에서 춘대 약 1천마리가 잡혔다. 10여년간의 일이라고 한다. 꿈결에 본듯 잠시 왔다가 사라진 명태, 부두에선 올 겨울에 거는 기대가 컸다. 아야진항에서 장공순 시민기자



간성읍 기관단체장 흘리 일손돕기

피망 지주대 세우기 활동 ... 류시철 읍장 등 4명 · 농협도 참가

간성읍 기관사회단체장과 농협이 지난 18일 흘리를 방문해 농번기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농협고성군지부와 금강농협 임직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흘리 3개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오후 1시부터는 류시철 간성읍장과 전연표 고성신협 이사장, 김정래 지적공사 고성지사장, 박종락 간성읍 변영희회장 등이 흘리 2개 농가를 찾아 피망 지주대 세우기 활동을 펼쳤다.

이날 농촌일손돕기에 참가한 전연표 신협이사장은 “매년 간성읍 기관단체장들이 농사일로 바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일손돕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지역주



농촌일손돕기에 나선 간성읍 기관사회단체장들이 지난 18일 흘리 농가를 찾아 피망 지주대 세우기를 하고 있다.

민들도 농촌일손돕기에 함께 동참해 어려운 농가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정해현 흘리 2리 이장은 “농촌일손돕기 활동에 참가해준 모든 분

들께 감사드린다”며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데 이렇게 도움을 주니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고성중고총동문회 체육대회

28~29일 ... 전야제 28일 고성종합체육관

제30회 고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정달수) 체육대회가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고성종합체육관과 모교운동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28일 저녁 6시 고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전야제 행사를 시작으로 막이 올라, 29일 오전 8시부터는 모교 운동장에서 체육행사가 진행된다. 개회식은 오전 11시에 열린다.

고성중고총동문회는 이번 행사부터 동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여년간 학교체육관에서 진행하던 전야제 행사를 고성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하기

로 했다.

정달수 총동문회장은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모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후배가 하나되어 꿈 많았던 학창시절로 돌아가 추억을 되새기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이동균 25회 회장(고 24회)은 “여러 선배님들과 후배들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며 “꼭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